HOT TREND VOL.11

# 미스트롯, 비주류 네 박자가 빚어낸 성공 드라마

"트로트에는 절실함이 있어야 해요."

'미스트롯' 심사를 맡은 장윤정은 첫 회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절박함'을 꼽았다.

이 키워드는 미스트롯 성공 요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스트롯은 트로트라는 마이너 음악 장르, 방송에서 소외된 시니어 세대, 데뷔는 했으나 현실의 그늘에 가려진 무명 연예인,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등 비주류 4요소가 빚어낸 절실함이 만들어낸 성공 드라마였다.

글 김선영 대중문화 평론가 herland@naver.com



국내 대중음악 시장이 1990년대 이후 댄스음악 위주로 재편된 다음부터 트로트는 단 한 번도 주류 장르로 언급 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트로트를 할 때 주눅 든 적이 많았어요 트로 트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감상하기보다 스스로 즐기는 음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다른 음악 장르와 비교해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미스트롯 마지막 회에서 장윤정이 밝힌 소감대로 트로트는 철저히 저평가된 음악 장르다. 장윤정이 트로트의 핵심 키워드를 '절실함'으로 꼽은 배경에는 고유한 한의 정서 외에도, 대중음악 시장에서 트로트가 처해 있는 어두운 현주소가 있었다.

하지만 미스트롯 기획이 빛을 발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장윤정 말처럼 제대로 '감상'할 기회조차부여받지 못한 장르를 본격적인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끌어온 순간, 그동안 저평가된 트로트의 진가가 재발견되기시작했다.

고등학생부터 현역가수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신분을 가진 도전자 100인이 참가한 예선전부터 일찌감치 트 로트 열풍의 조짐이 엿보였다. 정통트로트의 깊은 맛으로 감동을 준 송가인의 한 많은 대동강, 트로트에서도 섬세한 감성 보컬이 빛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홍자의 '상사화', 아이돌 음악을 신개념 트로트 팝으로 재해석한 숙행의 '솔로', 소울 넘치는 재즈 창법을 선보인 이소윤의 '밤안 개'처럼 예선전에서 호평 받은 무대들이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향한 관심으로 확장해 나갔다. 무대를 본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트로트에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창법과 연출이 가능한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 '덕질의 재미'에 눈을 뜬 시니어 세대

그도 그럴 것이 트로트를 퍼포먼스의 대상으로 제대로 감상해볼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트로 트를 본격적인 감상의 무대로 올린, 오디션 리얼리티 쇼 라는 포맷의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디션 리얼리 티 쇼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참가지들의 가창력뿐 아니 라 개성과 태도, 매력, 음색, 톤 같은 여러 요소를 평가하 면서 무대에 한층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미스트롯은 오디션 장르에서도 또 한 번 비주



류 층을 공략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국내에 최초로 오 디션 쇼 열풍을 불러일으킨 Mnet의 '슈퍼스타K' 시리즈 부터 오디션의 새로운 대명사가 된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까지, 이 장르의 기존 주요 타겟 시청 층은 젊 은 층이었다. 출연자 연령대도 1020세대에 치우쳐 있고, 다루는 음악도 젊은 층이 주요 소비자인 K팝이나 힙합 위 주였다. 이에 비해 미스트롯은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상 대적으로 다양하고, 시니어들이 즐겨 듣는 트로트로 공 략에 나섰다.

하지만 미스트롯이 단순히 출연자들과 트로트 음악에 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쇼를 다채 로운 드라마처럼 구성했다. 예컨대 고생하신 어머니께 노래를 바쳤던 떡집 딸 김소유의 사연으로 대표되는 효 의 서사,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지 4개월 밖에 안된 몸으 로 무대에 오른 정미애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응원하는 남편의 부부애 같이 예선전부터 출연자들의 다채로운 사 연이 시니어 세대에게 무대 외에도 끊임없는 이야깃거리 를 제공했다.

예선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송가인과 홍자를 투톱 라이벌 구도로 내세워 경쟁을 부추긴 것도 같은 전 략이다. 정통트로트 대 감성트로트, 가창력 대 음색, 파워 대 섬세함 등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지닌 송가인 과 홍자는 방영 내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막판까지 긴장감을 유지해 나갔다.

미스트롯이 '어른들의 프듀'로 불리며 시니어 세대로 부터 전례 없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데에는 이러한 극 적인 서사 전략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 해 시니어 충도 '덕질의 재미'에 눈을 뜨며, 오디션 리얼리 티 쇼를 즐기는 법을 알게 된 셈이다.

50

HOT TREND VOL.11

#### 절박함을 완성하는 언더독 서사

미스트롯을 관통하는 절박함의 키워드를 완성하는 또 다른 비주류 요소는 출연자들의 사연이다. 특히 트로트라는 마이너 장르에서도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내왔던 '현역부' 도전자들이 가진 사연이 끌어낸 언더독 효과는 이프로그램에서 강력한 흡인 요소였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꼽자면 첫 회 예선전에서 12년 차 현역가수 김양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심사위원 장윤정과 동갑에, 데뷔 시기도 비슷한 동기 사이였다.

데뷔곡 히트 뒤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양과 심사위원으로서 그녀를 평가하게 된 장윤정의 거리가 자아내는 비애는 시청자들의 감정 이입과 응원을 끌어냈다. "김양이 아직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 ©TV조선



활동하고 있구나를 알리려고 여기에 나왔다"는 그녀의 절박함은 미스트롯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대표 정서다.

또 다른 현역기수 숙행이 "세상은 몰라줘도 열심히 달려온 10년, 한 번은 내 세상이 오겠지"라는 심정을 담아준결승 도전곡 '나야 나'를 열창하는 장면도 김양의 무대 못지않게 시청자들을 울린 순간이다.

3위를 차지한 홍자도 마찬가지였다. 미스트롯 출연이 '무명 가수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밝힌 홍자는 마지막 무대인 '인생곡 미션'에 앞서, "팍팍했던 내 삶에 화려한 막이 한 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나 자신에게 들려줄 노래"라고 설명하면서 윤시내의 '열애'를 선곡했다. 비록 성대결절로 인한 고음 실수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태워도 태워도 재가 되지 않는 불꽃을 피우리라"는 처절한 노랫말은 홍자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 언더독 서사는 우승자 송가인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보여준다.

송가인 역시 인생곡 미션에서 선곡 배경을 소개하면 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국악 전공자에서 작곡가의 권유로 트로트의 길에 뛰어들었으나, 혼자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대기실도 없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야기. 그 어두운 시간을 떠올리면서 트로트를 처음 공부할 때 배운 곡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통해 초심을 되짚은 송가인의 무대는 미스트록의 베스트 신이다.

그리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한 뒤 "요즘에는 얼굴 이쁘고 몸매 좋은 가수들이 많은데, 전 너무 옛날 노래를 하고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떨어질 줄 알았다"고 밝히는 장면 에서 미스트롯의 언더독 서사는 완벽한 결말로 마무리 됐다.

### 여성의 꿈과 상품화의 아이러니

미스트롯에서 마지막 비주류 요소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서사다. 송가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정미애의 사연이 이를 대표한다. 10대 때부터 키워온 가수의 꿈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잠시 접었다가 출산 한 달 만에 오디션에 도 전할 정도로 무대가 절박했던 정미애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의 공감을 샀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부터 고통은 정미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장면은 첫 회 예선전에서 트로트 그룹 '세컨드'가 출연한 부분이다. 평균 나이 30대 후반인 이 4인조 그룹은 각기 다른 일을 하다가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여성들로 구성됐다. 치어리더 출신의 예나와 은표, 전직 리듬체조 선수 라니, 그리고 과거 걸그룹 'LUV'에서 활동한 은별이 그 멤버다. 치어리더, 걸그룹, 리듬체조 선수, 모두 수명이 유난히 짧은 여성 직종이다. '인생 제2막'을 의미하는 그룹명 '세컨드'에는 나이가들수록 경력단절의 확률이 높아지는 여성들의 현실이 녹아들어가 있다.

미스트록 최대의 아이러니는 이처럼 여성들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른 한편에서 여성 상품화 문제를 노출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선정적인 의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여성 상품화 프로그램인 미스코리아 포맷을 차용해 출연자의 얼굴과 몸매까지 품평하며무대 위에 세웠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들이 퍼포먼스를 펼칠 때마다 몸매를 훑는 카메라, 미모를 강조하는 자막, 남성 마스터들의 호들갑스러운 반응까지, 이들을 볼거리로 소비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논란의 군부대 미션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다. 군인들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션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드릴게요'라는 멘트로 호응을 유도하고, 걸그룹의 노래와 춤을 소화해야만 했다. 가창력 1인자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정미애가 "나 같은 뚱뚱한 아줌마를 누가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섹시한 퍼포먼스를연습하는 장면이 미스트롯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언더독 스토리는 계속 된다

사실 미스트롯의 언더독 서사는 최근 몇 년간 대중문화를 지배한 '을의 역습' 서사와도 맞아떨어진다. 해마다 소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과 준우승자 정미애가 경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TV조선

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2018전망에서 사회적 약자의 더 큰 약진을 뜻하는 '왝 더 독(Wag the Dogs)'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감정대리인'도 비슷한 맥락의 단어라 할 수 있다. 계급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양극화가점점 심화되는 시대에 실제로 성공의 환희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러한 현실을 파고들어 '갑잘'하는 기득권층을 항해 시원한 반격을 날리고, 을의 설움을 대변하는 스토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지상파 최고의 시청률을 거 둔 SBS 드라마 '열혈사제', 역시 큰 화제를 모은 MBC드 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나 여성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낸 영화 '걸캅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미스트롯의 성공은 이 같은 강력한 언더독 서사의 힘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사례다. 트로트라는 마이너 장르의설움, 시니어 세대의 소외감, 무명 연예인들의 반란, 경력단절 여성의 한 같은 비주류 네 박자가 어우러진 절박한스토리가 열광과 몰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53

52